

아들을 붙잡으려고 했더니 나도 이 세상을 떠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,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좋은 기분을 만끽하며 아들 뒤를 따라가고 있다고 느꼈답니다. 그런데 그때 제 친구에게 작별인사를 하고 싶었어요. 그러자 바로 그녀가 마리와 도맹그를 데리고 우리를 따라오는 것이 보였죠. 그런데 제가 그보다 더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건, 라투르 부인이 같은 날 밤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꿈을 꿔다는 거예요.”

나는 그녀에게 대답했네.

“친구여, 나는 이 세상에 신의 허락 없이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. 꿈은 이따금 진실을 알려주기도 하죠.”

라 투르 부인은 같은 날 밤 그녀가 꿔다는 무척 비슷한 꿈에 대한 이야기를 내게 들려주었다네. 이 두 부인에게서 미신적인 성향이 크게 눈에 띄는 적은 없었네. 그래서 나는 두 사람의 꿈이 일치한다는 사실에 놀랐고, 속으로는 그 일이 실현되리라는 것을 의심치 않았어. 그런 견해는, 그러니까 때로 잠들어 있는 동안 진실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도 한다는 생각은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널리 퍼져 있기도 하니까. 고대의 가장 위대한 사람들도 그런 견해를 믿었지, 그 중에서도 특히 알렉산더 대왕, 카이사르, 스키피오 가문 사람들, 두 명의 카토, 브루투스까지도 그랬는데, 그들이라고 나약한 정신을 가진 이들은 아니었네. 구약성서와 신약